

한일 가톨릭 주교단의 교류와 동반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 교구장

한국과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1996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24회에 걸친 회동을 통하여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지속적인 만남을 지속해 왔다. 이 양국 주교들의 만남은 서로 상대국 여러 교구를 교차 방문하며 상대 교회를 체험하고 상호관심사를 교환함으로써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화시켜왔다.

이 모임은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대구 교구 이문희 대주교와 일본 요코하마 교구 하마오 주교의 만남으로 촉발되었다. 1995년 1월 중순 마닐라에는 아시아 21개국의 주교회의 연합회 제6차 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청년대회(제10회)가 열렸다. 이 기회에 교종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였다. 이 때 이문희 대주교와 하마오 주교는 한일 양 주교회의의 대표로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열흘 가까이 개최되는 회의 일정 중 두 주교는 한일 양국 교회 주교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모임에서 귀국한 이문희 대주교는 안동 교구 박석희 주교와 서울 보좌 주교로 있던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였고 박 주교도 나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가톨릭 주교들의 만남이 공헌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했다. 이에 한국의 세 주교는 한일 양 교회 주교들의 교류를 시작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996년 2월 16-17일 일본 동경에서 양국 주교들의 첫 모임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이 문희, 박석희, 강우일 세 주교가 그리고 일본 측에서 하마오, 오카다 주교가 참석했다. 우선 이 다섯 명은 양국 주교들의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과 동참을 원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하자는데 합의하고 1996년 12월에 첫 번째 공식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양국 주교들이 함께 모이되 주교회의 차원의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교들 개인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하고, 경비도 되도록 개인 부담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주교들의 모임이 시작된 데에는 당시의 양국의 정치적, 사회적, 교회적 상황이 작용하였다.

1983년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이 결집한 ‘教科書正常化國民會議’에 소속된 ‘日本を守る國民會議’(이하 국민회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한 적정한” 일본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85년 5월 《新編日本史》(原書房)을 작성하여 검정을 신청하였다. 문부성은 이듬해 5월 800여 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新編日本史》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언론은 시정 약속을 어기고 군국주의를 계속 미화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한국과 중국정부의 항의에 일본정부는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의 강권 발동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의 123곳을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수정하도록 지도하였다.¹⁾

199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오랜 군사 독재와 냉전 체제 하에서 침묵을 강요받았던 대일과거청산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자신이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사실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일본 측의 진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93년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고오노 요헤이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내각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시아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내 우익과 보수 세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가톨릭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미 1986년 9월 16-25일 동경에서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1)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https://www.jkcf.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9/11/4-09k.pdf>(접속일: 2020. 5. 21), 246-247.

FABC 총회가 열렸을 때 시라야나기 추기경이 일본 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일본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로서 아시아 주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천명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 일본의 주교들은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일본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일본이 세계2차대전 중 초래한 비극에 대하여 하느님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천만을 넘는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쓰라린 상처를 안겨드리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95년 2월 25일 일본주교단은 세계2차대전 후 50주년을 기념하며 ‘평화를 향한 걸음’라는 주교단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 공표하였다. 이 문서에서 일본 주교단은 1986년의 시라야나기 추기경의 선언과 고백을 상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 일본 주교단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분명히 일본군은 조선 반도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곳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고 쌓아올려진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고 잔혹한 파괴 행위로 무기를 지니지 않은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도 아시아인들에게 부과된 상처를 기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새로운 세대의 일본인들도 이어받아야 함을 여기 새롭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라야나기 추기경과 일본 주교단이 공적으로 표현한 이러한 진심어린 참회와 속죄의 고백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교회 안에 먼저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가해자로 뚜렷이 지목함으로써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하였다. 그녀의 자기 고백으로 피해 여성들은 자학과 침묵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민족 문제이자 여성 문제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1993년 6월 1994년도용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 검정을 신청한 9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

한 내용을 수록한다고 발표하였다. 8월 4일에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 시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고오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력을 확보하고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 형성되고 있던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집권층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고오노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인 8월 9일 비 자민당 출신의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출현하였다. 55년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는 8월 15일 ‘戰没者追悼式典’에서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을 발언할 정도로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 총괄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에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 및 일부 보수 세력은 즉각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국가에 긍지를 갖는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목표로 하는 ‘歴史 檢討委員會’를 8월에 발족시켰다. 1994년 6월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이 등장하자 더 한층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내 우익은 12월에 ‘終戰 50周年 國會議員聯盟’을 결성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인 근린제국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무라야마 내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95년 8월 15일에 비록 침략 전쟁에 대해 직접 사죄하지 않았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시아 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 세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²⁾

이런 시대적 정황이 무르익어 한일 양국의 주교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미래를 향한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1996년 12월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모인 두 번째 회의에서 한일 주교들은 한국 측에서 정재정 교수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라는 강의를 듣고, 일본 측에서 기미시마 가쓰히고 교수의 ‘일본과 한국, 역사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강의를 들으며 양측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좁혀가는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였다.

3회 모임에서도 한일 주교들은 계속 양국의 역사문제에 관한 강의를 역사학자들로부터 들었고, 4회(1998년 11월)부터는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테마도 다루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양국 주교들의 사목적인 활동과 관심에 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6회부터는 장소도 서울과 동경 양국 수도권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각 교구를 순차 방문하며 친교를 이루고 지역 문화에도 접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6회는 부산 교구에서 모였다. 이렇게 10회까지 계속 양국의 주교들은 한일 역사학자들로부터 양

2) Ibid., 249-250.

국의 역사와 관련한 주제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며 역사 인식의 간격을 좁혀나갔다.

3회에서는 ‘전후의 역사 인식’, 4회에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양국의 역사’, 5회에는 ‘16, 17세기 한일 그리스도교 관계사’, 6회에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7회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한일관계’, 8회에는 ‘조선통신사와 21세기 한·일 관계에 대하여’, ‘오키나와의 역사와 나하 교구’, 9회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교훈’, 10회에는 ‘일본 속의 한국, 그리고 제주인의 역사’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역사 문제를 계속 다루었다. 또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면서 양 교회 주교들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양국 가톨릭계 미션스쿨에서 역사 수업의 부교재로 쓸 수 있는 공통 한일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결의하고, 그 책임을 전 한국국가사편찬위원장 이원순 교수께 일임, 일본 측 역사학자와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발간하였다.

11회 모임부터 한일 주교들은 한 단계 나이가 과거의 기억에만 계속 머물기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로 시선을 확대하기로 하고 2005년 오키나와 나하에서 모였을 때는 ‘오키나와 전쟁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부대의 문제’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일본 사이타마 교구장 다니 주교가 ‘정교분리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한국 측에서는 춘천 교구 장익 주교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전망’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12회는 신학생 양성에 대한 양국 교회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었고, 13회 삿포르 모임에서는 양국 교회에서 박해의 원인과 교회의 대응에 대한 성찰을 나누었다.

14회에는 ‘이주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양국의 급증하는 이주민 사목 현황에 대해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9년 11월 오사카에서 모인 제15회에서는 그 해 2월에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기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갖는 한편, 고베 대지진 현장과 오사카 내 조선인 거주 지역 이쿠노와 조선인 학교를 방문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16회에는 한일 양국 사회 안의 자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살에 관한 일본 교회의 사목적 대응에 대해 들었다. 2011년 11월 센다이에서 열린 제17회 모임에서는 핵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들은 다음 그 해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17회 교류모임 회기 중 일본 주교단은 ‘지금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를’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참석한 한국 주교단 20명도 이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17회 회

기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한국 경주에서 모인 18회 교류 모임에서도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탈핵 운동,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이러한 공동의 사목적 관심을 토대로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2013년 11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부제: 핵 발전에 관한 한국 교회의 성찰)’이란 제목으로 원전과 관련한 한국 교회의 첫 가르침을 발표하였다. 126면의 이 책자를 받아 일본주교회의는 일본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일본 주교회의는 2016년 10월 ‘지금 바로 원전의 폐지를’이라는 제목으로 탈핵을 지향하는 일본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86면의 상세한 자료를 발간하였고, 이를 받아서 한국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는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였다.

제19회와 제20회 회기에서 한일 양국의 주교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가주의와 우경화 현상을 우려하며 현대 교종들의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제20회기 마지막에는 ‘한일주교교류모임 20회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참석한 한국 주교 22명과 일본 주교 16명이 아래와 같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이 한일주교들이 이어온 지난 24년의 공동노력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주교교류모임 제20회를 맞이하여

이문희 대주교와 고(故) 하마오 추기경의 만남으로 시작된 한일주교교류모임은 금년으로 제2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양국 주교 소수의 자발적 참여로 출발한 모임이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양국 주교단의 대부분이 참가하는 비중 있는 중요한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주교들은 두 나라의 여러 교구를 교차 방문하여 인간적, 신앙적 교류를 심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적 친교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의 역사 문제를 탐구하며 과거의 갈등과 상처의 골을 넘어서 그리스도적 시선으로 화해를 실현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양국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사목 문제를 폭 넓게 다루면서 오늘의 세상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 현상 속에서 소외되고 짓밟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

키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의 세계에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인류의 미래 환경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핵발전소 위협의 현 주소를 공동으로 탐색하며 교회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함께 연대를 모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과 체험을 깊이 있게 공유함으로써 같은 그리스도 제자단의 구성원으로 일체감을 더욱 높이 쌓아올리고 양국 교회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한일 청년들의 방문과 교류, 수도자들의 대화, 교구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신자들이 왕래하고 사제들이 파견되는 등, 적지 않은 결실이 있었습니다.³⁾

그러나 최근 동북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 역사 인식의 차이를 통해 각국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격돌로 국가주의(내쇼날리즘)가 고양되고 군사적 긴장도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악화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양국의 주교들은 20년 가까운 지난 세월의 친교의 축적을 밑거름으로 양국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 한층 진력할 책무를 공감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일 주교들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고유한 역사와 과제를 직시하며 교류를 심화하고, 같은 그리스도 제자로서 함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양국 가톨릭교회에 강복하여 주시고, 두 나라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게 하시며, 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한일주교교류모임 참가자 일동

3) 현재 양국 교회에서 히로시마 교구와 부산 교구, 교오토 교구와 제주 교구가 각각 자매결연을 통하여 인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비교적 사제 성소가 넉넉한 한국 교회 여러 교구와 수도회에서 *Fidei Donum*(신앙의 선물) 형태로 일본의 여러 교구에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사제들이 44명에 달하고 있다.

